

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FQA

Q A

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합니까?

- 이번 시험을 통해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근무시간만 짧은 뿐 기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.
- 승진·급여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존 일반직공무원과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며, 정년 60세를 보장합니다.

Q A

응시자격요건 중 '경력'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, '관련분야'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이번 시험에서 '관련분야' 경력 인정여부는 서류전형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. 응시자 본인은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을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.

Q A

복수의 모집단위에 응시가 가능합니까?

- 모집단위 중 한 곳에만 응시가능합니다.

Q A

이번 채용시험에서 인정된 '관련분야 경력'은 전부 호봉에 반영됩니까?

-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의 경력인정 기준과 호봉인정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, 채용시험에서 인정된 '관련분야 경력'이라도 호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호봉인정 기준은 임용 후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?

• 기본급 + 수당 = 총 급여

[기본급 확인 요령]

- ① 시간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지급받음
- ② 직급 및 호봉별 기본급은 법령정보센터 사이트 (www.law.go.kr)에서 '공무원보수규정'을 검색하여 확인[별표3, 별표 3-2, 별표5 참고]

[수당 지급액]

- ①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
- ②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,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취지상 초과근무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
- ③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



이전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이 곤란한 경우 4대 보험 납입고지서 등으로 경력증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?

- 이전 근무처에서의 경력 증명이 어려울 경우 경력증명서 대신 4대 보험 납입고지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, 세부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분야 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

현재 임신중이며 올해 안에 출산 예정인데,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선발된 후 임용유예가 가능합니까?

-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민간의 유능한 경력자를 신속히 선발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채용의 목적이므로 임용유예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

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?

-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주20시간이며, 임용예정기관의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.



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?

- 시간변경 가능여부는 임용예정기관별로 다르며 기관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공고된 근무형태(반일제 또는 격일제) 및 근무시간에서 변경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.



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담당업무나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습니까?

-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근무 후 담당업무 또는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
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겸직이 가능합니까?

- 현행 법(국공법 제64조)에서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, 임용예정기관의 소속기관장이 겸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



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?

-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.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

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승진은 동일하게 인정됩니까?

-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할 수 있으며,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됩니다.